

11. 중요 정보 독점제공 금지

기업은 곧 발생할 중요 사건 또는 보도에 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특정 언론에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몇몇 기업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할 때까지 'embargo' 또는 보류할 것을 조건으로 특정언론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선택적 공시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 정보는 기업이 발표하기 전에 언제이고 유출될 수 있다. 종종 언론사는 뉴스를 인쇄물로 배포하기 전, 기업이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인 이른 아침 시간에 자신들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기도 한다.

NIRI는 중요 정보가 모든 언론매체에 동일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중요 사건의 독점적 뉴스를 특정 언론에만 제공하고 다른 언론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와의 관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12. 정보의 중요한 변경을 정정 및 보완할 의무

기업은 공시한 정보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공개적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정정의무(duty to correct)'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

되어, 이전의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정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의 변경 내용을 보완(update)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향후 예측정보(forward-looking statement)를 보완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명기하였다. 그럼에도 기업은 향후 예측정보 보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의 중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예측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NIRI 회원사들은 자사의 웹사이트와 연계된 IR 섹션이 있다. 인터넷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정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정보로 보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IRI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목적보다는 역사적 기록을 위해 제공한다는 주의사항이 첨부된 웹사이트 기록보관 섹션에 최신 정보를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IRO의 삶은 고달프다

이 자료는 IR매거진 2012년 3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이 시대를 살아가는 IR담당자의 삶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하다. 물론 시장이 현 상황보다 안정적이고 투자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있지 않은 때라면, 일반적으로 IRO들은 자신의 고객(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들을 만족시킬 자신감으로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시장상황이 혼란스럽고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어떤 일에 중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남

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자신 있게 내세운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IR담당자들에게 최근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곤란한지와 미래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았다. 질문을 접한 대다수 IR담당자들은 다양한 불만 및 좌절감을 분출했고, 심한 경우 절망감을 표현하는 이도 있었다. 또 앞

으로 전망이나 희망사항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고 대답하는 이도 있었다.

IRO의 업무수행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애로사항	응답수
거시경제적 요인	186
시장 분위기	98
시장의 변동성	86
기업 고유의 문제	70
실적전망 관리	46
과도한 업무, 자원 및 인력부족, 시간관리	45
M&A, 분할·합병	41
투자자 타케팅	31
경영진 관련 업무	25
애널리스트 커버리지	24
감독·규제, 세무·법률 관련 이슈	18

※ 644명의 전 세계 IRO들에게 최근 12개월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임

644명의 응답자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IRO 자신이나 그들이 속한 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요인들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설문 결과는 11개의 개별적인 애로사항으로 분류되었는데, 실제로 상위 3개 항목 - 거시경제적 요인, 시장 분위기, 시장의 변동성 - 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차지했다.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최근의 유럽위기는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시경제적 요인 중 하나이다. 위기는 주식시장에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불안감 때문에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IR담당자들은 이런 투자자들의 행동은 결국 시장을 필요 이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비이성적으로 변해버린 시장 분위기가 투자자들을 상대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대동소이했다. 심지어 같은 표현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지역적으로도 아시아, 유럽, 북미, 브라질을 가릴 것 없이 큰 차이가 없었다. 실제 각 지역별 응답자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위기를 이해하고, 회사의 주가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일’ - 브라질
- ‘유럽국가의 부채와 관련된 위기가 주가에 미칠 영향을 다루는 일’ - 중국
- ‘암울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긍정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일’ - 캐나다
- ‘위기 하에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 - 유럽

펀더멘털과의 격리

기업이나 산업의 펀더멘털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따로 노는 경우는 IR담당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 회사 주가가 펀더멘털이 아닌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아 요동치는 상황이 가장 난감합니다.”라고 미국의 IRO는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거시경제로부터 뺏어와 펀더멘털에 집중토록 하는 일이 힘겹습니다.”라고 하는 스페인 IRO도 있었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 크나큰 도전과제라는 아시아의 IRO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IRO의 근심거리가 외부 요인이나, 불안정한 시장, 패닉상태에 빠진 주주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IR담당자는 자신의 기업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할 애널리스트를 추가로 확보한다거나, 회사의 주식을 사줄 주주를 물색하는 등의 전형적인 IR관련 업무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회사 내부의 이슈를 끄는 이들도 있었는데, 경영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투자자들과의 시간을 늘리거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어려움, 항상 부족한 시간관리 등의 경우가 여기에 속했다.

미국의 한 IRO는 ‘줄어든 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혹자들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자원부족 및 세계 경제’, ‘과도한 업무’ 등이 IR담당자의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꼽은 이도 있었다. 